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241

JCCT 2021-8-28

Ladysmith Black Mambazo 음악의 특징: 'Black is Beautiful', 'Homeless'를 중심으로

Anala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Ladysmith Black Mambazo Music: Focusing on 'Black is Beautiful' and 'Homeless'

안시현*

Sihyeon Ahn*

요약 Ladysmith Black Mambazo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적인 줄루 아카펠라와 미국흑인음악의 영향을 받은 남성 그룹이다. 미국의 주빌리 합창단이 1870년대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와서 공연을 하면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토착적인 줄루족의 아카펠라와 미국의 주빌리 음악 스타일이 만나 탄생한 음악이 Ladysmith Black Mambazo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Paul Simon의 앨범 『Graceland』에 참여하게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진다. 앨범은 수백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게 되고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도 자신들만의 앨범을 발매하여 그래미어워즈에서 총 5회의 수상을 하게 되고, 15회 노미네이트 되었다. 그들은 음악적 유산보존을 철학으로 삼아 줄루족의 음악을 계승·발전시켰다. 같은 비서구권 국가로서 범고창신의 정신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뮤지션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길 바라며 Ladysmith Black Mambazo의 'Black Is Beautiful'과 'Homeless'의 음악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음악이 서양의 음악에서 받아들인 점과 자신들만의 전통음악에서 계승해나가고 있는 점들을 알아보았다.

주요어 :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 줄루 아카펠라, 남아프리카공화국, Black Is Beautiful, Homeless

Abstract Ladysmith Black Mambazo is a group of men influenced by South African traditional Zulu a cappella and American black music. The Jubilee Choir of the United States came to South Africa in the 1870s and influenced South African music while performing. Ladysmith Black Mambazo's music can be the result of the combination of the indigenous Zulu a cappella and the American Jubilee music style. This group participated in Paul Simon's album "Graceland" and became world famous. The album won a Grammy Award for sales of millions of copies. After that, they released their own albums and won 5 times Grammy Awards (nominated 15 times) They inherited and developed Zulu music under the philosophy of "preserving musical heritage". As a samely non-Western country, with hope their spirit, inheriting old one and innovating new one, gives positive inspiration for Korean music, I investigated how their music, 'Black Is Beautiful', 'Homeless' are influenced by the western music and inherited their own traditional music in it.

Key words : Ladysmith Black Mambazo, Zulu A Capella, Republic Of South Africa, Black Is Beautiful, Homeless

*정회원, 예원예술대학교 실용음악학과 조교수, 예술학박사
접수일: 2021년 6월 30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23일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31일

Received: June 30, 2021 / Revised: July 23, 2021

Accepted: July 31, 2021

*Corresponding Author: nansuperstar@naver.com

Dept. of Applied Music, Yewon Arts Univ, Korea

I. 서론

Ladysmith Black Mambazo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적인 줄루 아카펠라와 미국흑인음악의 영향을 받은 남성그룹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음악이 다른 아프리카 지역의 음악에 비해 독특한 점은 미국 흑인음악의 영향을 받은 기간이 150년 정도 되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1870년대 대학이 재정모금을 위해 주빌리 합창단을 만들어 공연을 하였다. 그 후 이들은 30~4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무대에 섰다.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 와서 공연을 하였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음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즉, 그 결과물이 토착적인 줄루족의 아카펠라와 미국의 주빌리 음악스타일이 만나 탄생한 Ladysmith Black Mambazo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Ladysmith Black Mambazo는 그들의 이름으로 발매된 음반 <Shaka zulu>로 최고 전통 포크 음반 부문의 그래미상을 수상하여 음악성과 대중성을 확인 받은 바 있다 [1]. 그 후로 그래미 어워즈에서 5번의 수상을 하였고 15회 노미네이트가 되었다.

이처럼 그들은 음악적 유산 보존을 자신들의 음악 철학으로 삼아 부르러우면서도 자유분방한 형식을 특징으로 하는 줄루족의 전통음악을 계승하고 발전시켰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우리와 같은 비서구권 국가이다. Ladysmith Black Mambazo는 그들의 토착음악에 대한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려 하였다. 본 연구 초반에는 국제적으로 K-Pop의 입지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도중에 싸이를 시작으로 BTS까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BTS는 '아이돌'이라는 음악의 티저에서 미디어로 국악사운드를 재현하였고, 가사에 '덩기덕쿵더러러', '지화자', '얼쭈 좋다'등을 넣는 등 팝적인 음악에 우리 고유의 것을 녹여내는 시도를 하였다. 이는 범고창신에 있어 Ladysmith Black Mambazo와 접점이 나타난다고 보인다. 본고는 Ladysmith Black Mambazo의 'Black Is beautiful'과 'Homeless'의 음악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음악이 서양의 음악에서 받아들인 점과 자신들만의 전통음악에서 계승해나가고 있는 점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결과물을 통해 예술은 끊임없이 진화 발전해 왔음을 확인하고 나아가 국내의 전통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도하려는 많은 뮤지션들에게 이와 같은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II. Ladysmith Black Mambazo에 대하여

Ladysmith Black Mambazo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남성 아카펠라 그룹이다. 그들은 그룹명은 '레이디스미스 마을 출신의 검은 도끼'라는 뜻으로 줄루족의 전통 음악인 Isicathamiya에 바탕을 둔 음악을 하고 있다 [2].

7인조로 시작한 이들은 현재 40개 이상의 음반을 보유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73년 첫 앨범 <Amabutho>를 발표해 아프리카 LP중 첫 공식적인 골드 앨범을 기록했다.

Simon&Garfunkel이 해체된 후에 Paul simon이 혼자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음악에 월드뮤직적 요소의 도입을 시도하였다. LA에서 음반을 녹음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Paul simon은 우연히 알게 된 Ladysmith Black Mambazo의 음악을 듣고 독특한 아프리카 보컬 사운드에 매료되어 그들과 함께 싱글음반 <Homeless>를 내놓았다. 이후 비평가와 대중의 호평에 힘입어 음반 전체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통음악인 줄루 스타일로 발표한 <Graceland>는 수백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1986년과 1987년 두해 연속 그래미 어워즈에서 Paul simon에게 올해의 음반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었다. Ladysmith Black Mambazo는 당시까지 세계적으로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냥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많은 음악그룹 중 하나였다. 음반 <Graceland>의 성공으로 이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진출하여 나이트라인(Night line)등 인기 토크쇼에 출연하며 그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3].

1987년 Ladysmith Black Mambazo는 그들만의 음반 <Shaka Zulu>로 최고 전통 포크 음반 부문의 그래미상을 수상하여 음악성과 대중성을 확인받았다. 그 후 그래미 어워즈에서 5회의 수상을 하였으며 15회 노미네이트된 바 있다. 그들의 활동은 꾸준히 이어져 독자적 음반발매와 세계적 팝스타의 참여가 이어졌다. 테즈레(Des'ree), 라이트하우스(Lighthouse family) 등 세계적 팝스타들이 함께한 <In harmony>와 단독음반 <The star and the wiseman>은 영국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4]

Ladysmith Black Mambazo가 2004년 4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최고 전통 월드뮤직 부문을 또 다시 수상했을 때, 이들의 출신지 콰줄루-나탈(Kwazulu-Natal)의 주지사, 제1야당 민주동맹 DA를 비롯하여 음베키(Mbeki) 현직 대통령까지 축하성명을 낼 정도였다 [5].

그 후 그래미 어워즈에서 2009년에 최고 전통 월드뮤직 부문을 수상하였고 2013년에 최고 월드뮤직 부문 수상, 그리고 2016년엔 같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되었다. 2017년에 또 한 번 최고 월드뮤직 앨범부문 수상을 하였다.

리더인 조셉 샤발랄라는 2020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남아프리카의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는 이시카타미야를 계승 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리더인 조셉 샤발랄라와 그의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3대에 이어서 함께 공연을 하면서 전통적인 음악요소가 녹아 있는 이시카타미야를 전 세계에 알려왔다. 대를 이어서 그룹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셉 샤발랄라가 없더라도 계속 이어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2020년에 앨범을 발매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COVID-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연이 멈췄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워싱턴지역에 위치한 주요 공연장이 공연스케줄을 정상화한다고 밝혔고, 조지메이슨대학(GMU) 예술센터가 오는 9월에 개관 20주년을 겸해 상연할 예정인 시즌 개막작 ‘어 셀리브레이션 오브 리뉴얼’을 상연할 예정에 레이디스미스 블랙 맘바조가 공연을 할 예정이다 [6].

III. Ladysmith Black Mambazo 음악의 특징

Ladysmith Black Mambazo의 음악인 ‘Black Is beautiful’, ‘Homeless’의 주요 부분 분석을 통해 Ladysmith Black Mambazo 음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Ladysmith Black Mambazo의 음악인 ‘Black Is beautiful’의 도입부 및 A 파트 악보이다.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리드보컬의 선창에 이어 나머지 성부의 합창으로 곡이 시작되며, 주화음인 Eb 메이저를 중심으로 화성이 단순하게 진행되는 반면, 박자는 3/4박자에서 4/4박자, 5/4박자 등 다채롭게 변화하며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점 8분 음표와 16분 음표, 2박 3연음 등 리듬감을 강조하는 선율을 사용하였다.

그림 2와 같이 ‘Black Is Beautiful’의 B 파트는 리드보컬의 선창과 나머지 성부의 합창이라는 구조는 A 파트와 동일하나, 13마디에서 화성적으로는 V인 Bb 메이저 트라이어드의 사용으로 도미넌트 모션을 나타내었

다. 또한 변박의 사용이 절제되고, 선율에서 8분 음표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리듬을 사용한 것은 A 파트와 대조되는 부분이다.



그림 1. <Black is Beautiful> 도입부 및 A 파트
 Figure 1. <Black is Beautiful> Intro, Part A



그림 2. <Black is Beautiful> B 파트
 Figure 2. <Black is Beautiful> Part B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Black Is Beautiful’의 C 파트를 살펴보면 리드보컬을 제외한 나머지 성부는 주어진 화성에 따라 합창하며, 각 마디에서 앞 2박자를 세 성부가, 뒤 2박자를 리드보컬이 번갈아가며 주고받는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 화성적으로는 Ab->Eb, Bb->Eb의 케이던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2마디 단위의 짧은 프레이즈가 반복되며 역동적인 느낌을 더하는 효과를 준다. 리듬적인 부분에서도 A, B 파트와는 다르게 싱커페이션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화성에서 쓰인 짧은 단위의 케이던스와 더불어 약박을 강조하여 보다 역동성을 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3. <Black is Beautiful> C 파트 [7]
Figure 3. <Black is Beautiful> Part C

다음은 두 번째 곡인 'Homeless'의 악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4는 'Homeless'의 도입부 및 A 파트이다. 리드 보컬의 선창으로 곡이 시작되며, 나머지 세 성부는 합창을 통해 리드보컬의 선율에 응답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화성적으로는 I-IV-V-I과 I-V-I의 간단한 케이던스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파트는 총 10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 6마디는 8분 음표 단위의 단순한 리듬을 사용하며, 뒤 4마디는 점8분 음표와 16분 음표 단위의 역동적인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대비를 이루고 있다. 3/4박자와 3/5박자 간의 상호 변박이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의 그림 5는 'Homeless'의 B 파트이다. 그림 5를 살펴보면 4마디 단위의 프레이즈를 모든 성부가 합창하며 2번 반복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화성적인 부분은 마찬가지로 단순하나 IIm가 사용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앞 A 파트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마디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싱커페이션이 사용되었는데 이로 인해 약박이 강조되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 4. <Homeless> 도입부 및 A 파트 [8]
Figure 4. <Homeless> Intro, Part A

그림 5. <Homeless> B 파트 [9]
Figure 5. <Homeless> Part B



그림 6. <Homeless> C 파트 [10]
 Figure 6. <Homeless> Part C

이어지는 악보 6은 'Homeless'의 C 파트이다. 악보 6을 보면 2마디 단위로 리드보컬의 선창에 나머지 성부가 응답하는 구조와, 모든 성부가 짧은 프레이즈를 합창하는 구조가 번갈아 나타난다. 22마디와 24마디는 동일한 모티프로 만들어진 프레이즈인데, 24마디에서는 일부 노트를 생략하는 기법으로 음형을 단순화시킨 것이 특징적이다. 이로 인해 단순한 반복 기법에 비해 보다 다채로운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결론

Ladysmith Black Mambazo의 'Black is beautiful'과 'Homeless'의 분석을 통해 구조, 화성, 리듬, 선율의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도입부가 리드보컬의 선창으로 시작되는 공통점이 있었고 주로 3가지 패턴의 구조로 곡이 전개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성부가 동일한 리듬으로 합창 시, 화성 진행이 단순한 이유로, 주로 변박을 통해 다채로운 변화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리드보컬과 나머지 성부의 주고받기 형식을 사용할 때에는 4/4박자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한마디를 2박자씩 나누어 주고 받는 형태가 주로 사용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리드보컬과 나머지 성부의 분리 시에는 리드보컬이 자유롭게 선율을 노래할 때, 나머지 성부가 반주 형식으로 합창을 한다.

다음은 화성적인 특징이다. I, IV, V 등 서양음악에서의 기본적인 주3화음이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I-IV-V-I, I-IV-I, I-V-I의 단순한 3가지 케이던스만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근음을 중복하거나 5음이 생략되는 경우가 잦았다. 합창 시에 서양음악의 화성 진행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여러 성부의 유니즌 기법을 사용하여 풍성한 화음보다는 선율적인 특징이 강조되는 편이다. 이는 유럽식의 아카펠라 음악에서 기원한 가스펠과 비교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리듬적으로 공통되는 특징은 3/4, 4/4, 5/4, 6/4박자 등 다채로운 박자들 간의 변박이 많았다. 이는 화성의 단조로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고받기 형식이 나타날 때, 싱크페이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약박을 강조함으로써 역동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음악들의 선율적인 특징은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음형보다는 순차적으로 하강하는 음형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특히 모든 파트의 마지막 마디에서는 항상 하강하는 음형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전 파트의 마지막 마디에서 순차적으로 상승하여 다음 파트의 첫 마디의 음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각 파트의 독립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음악적 특징 분석을 통해 Ladysmith Black Mambazo는 미국의 흑인음악의 요소를 받아들였지만 모방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 음악 장르로 발전시킨 제3세계 음악 장르의 좋은 예임을 증명하였다.

21세기는 세계적으로 다양성과 독창성이 동시에 중요시되는 시점이다. Ladysmith Black Mambazo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새롭게 자신들만의 음악을 창조해 내었다. 이에 국내의 많은 뮤지션들도 그들의 예술 정신을 본받길 희망한다 [11]. 또한 민족적 자주성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유 음악 장르 형성에 Ladysmith Black Mambazo의 음악을 좋은 표본으로 삼길 바란다.

References

- [1] Jin Woo Kim, No Hyeong Min, Young Sim Park, Jeung Hyub Seo, Soo Jin Oh, Ok Nim Jang, and Il Seo Jeong, KBS FM World Music, Moonwhachango, p. 78, 2005.
- [2] Veit Erlmann, Nightsong: Performance, Power, and Practice in South Africa, University of

- Chicago Press, p. 309, 1996.
- [3] Jin Woo Kim, No Hyeong Min, Young Sim Park, Jeung Hyub Seo, Soo Jin Oh, Ok Nim Jang, and Il Seo Jeong, KBS FM World Music, p. 73, 2005.
- [4] Jin Woo Kim, No Hyeong Min, Young Sim Park, Jeung Hyub Seo, Soo Jin Oh, Ok Nim Jang, and Il Seo Jeong, KBS FM World Music, p. 73, 2005.
- [5] Jin Woo Kim, No Hyeong Min, Young Sim Park, Jeung Hyub Seo, Soo Jin Oh, Ok Nim Jang, and Il Seo Jeong, KBS FM World Music, p. 74, 2005.
- [6] Washington JoongAng Ilbo,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362483
- [7] Ahn Si Hyeon, Study of the aesthetics of Zulu 'Isicathamiya', Ph.D.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 67, 2017.
- [8] Ahn Si Hyeon, Study of the aesthetics of Zulu 'Isicathamiya', Ph.D.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 93, 2017.
- [9] Ahn Si Hyeon, Study of the aesthetics of Zulu 'Isicathamiya', Ph.D.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 71, 2017.
- [10] Ahn Si Hyeon, Study of the aesthetics of Zulu 'Isicathamiya', Ph.D. Thesis. Kyung Hee University, p. 68, 2017.
- [11] Kim Doyoung, "The foundation and Characteristic on the Aesthetic of Euijae Huh BaekRyun' Namjonghwa",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6, No. 3, p. 8, 2020.

* 이 논문은 필자의 2017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7.2) 「Zulu의 'Isicathamiya'에 나타난 미의식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